

코로나19 전후 중학생의 학업무기력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신혜숙** · 민병철***

I 알기 쉬운 개요

코로나19 시기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등교 중지는 학생들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 중학생의 학업무기력 변화를 비교하고 관련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의 코로나 이전 중학생자료(중등패널)와 코로나 이후 중학생자료(초등패널)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중학교 1학년에 비해 2학년 때 학업무기력이 높아졌으며, 특히 코로나 시기에 중학교 1~2학년을 보낸 학생의 학업무기력이 더 높아졌다. 부모학력과 가구소득,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부모나 친구, 교사 등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았다.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감소했다.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학생이라도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면 학업무기력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업무기력이 높은 집단을 발굴하고, 학업무기력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 이 논문은 제12회 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좋은 의견 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강원대학교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교신저자, bcmin80@gmail.com

투 고 일 / 2023. 12. 11.

심 사 일 / 2024. 1. 27.

심사완료일 / 2024. 2. 14.

I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8’의 초등패널과 중등패널의 중학교 1~2학년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전후의 중학생의 학업무기력 변화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인특성, 가정환경,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2020~21년 코로나19 시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등교 중지는 학생들의 정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8’은 중학교 1~2학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8~19년에 보낸 중등패널과, 코로나19 이후인 2021~22년 보낸 초등패널로 구성되어 있어, 3년의 격차를 둔 두 패널의 학업무기력 변화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에 비해 2학년에 학업무기력이 높아졌으며, 코로나 이전 중학생(중등패널)에 비해 코로나 이후 중학생(초등패널)의 학업무기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특성 및 가정배경 관련하여,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은 편이었다. 사회적 관계와 관련해서는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친구관계 및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았다. 이중 부모양육태도와 교사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 전에 비하여 코로나 이후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무기력 관련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집단을 구체화하고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을 낮추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학교에서 친구와 교사와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증진함으로써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학업무기력, 코로나19,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8

I. 서 론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가 처음 국내에 유입되고 같은 해 2월 전국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교육과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도래하였다(이정연, 박미희, 소미영, 안수현, 2020; Gerard et al., 2022). 무엇보다 교육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계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초·중고 및 대학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었다. 즉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에 참여하였고,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불가능한 시간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현장에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청소년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먼저, 교사와 학교의 역할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에서 학생들의 학습참여를 관리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급격히 변화되었고, 학생들 역시 스스로 학교수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만 수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강미애, 남성욱, 2020; 김혜진, 2020; 이준희, 김시현, 2021). 이 결과 수업의 참여도가 이전보다 떨어지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이 저하되었다(신철균, 위은주, 남경은, 2021).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소년들은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졌다(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 서미 외, 2021).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학생들은 학교나 야외에서 친구들과 여가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주로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이 코로나 전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 가이다.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와 심리적 고립감이 학업무기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강혜원, 김영희, 2004; 안태용, 2016; Akca, 2011; Raufelder, Regner & Wood, 2018). 학업무기력은 스스로의 노력이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하여 학업적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박병기, 노시언, 김진아, 황진숙, 2015). 이는 기존의 학습된 무기력(김아영, 주지은, 1999; Hiroto & Seligman, 1975; Seligman, 1972)이 학업의 장면에 나타난 것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학업무기력은 낮은 학업성취와 학교부적응 외에도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높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문은식, 배정희, 2010). 또한 학업무기력은 청소년기 발달의 방해요인이며, 학생들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희수, 2006). 학업무기력은 청소년들의 연령이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학업의 난도가 높아지고 학습의 결손이 누적되기 때문이다(노연경, 송주연, 우연경, 2022; 정문주, 양현숙, 채은영, 김선희, 2016; Filippello et al., 2015).

팬데믹 시기 청소년이 학업무기력 등을 포함한 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많으나(정익중 외, 2020; 서미 외, 2021),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의 학업무기력이 어느 정도 심해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주었는지, 관련 요인의 영향이 코로나 전후 달라졌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혜림 등(2023)의 연구에서 코로나 이후 초등학생들의 학습시간을 유형화하고 학업무기력과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나(이혜림, 이진희, 최인수, 김선진, 2023), 코로나 이후 자료만을 활용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권현주(2023)의 연구에서 2018년 중학생 1학년들이 2021년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전후의 학업무기력의 변화를 유형화하여 관련변인을 분석한 바 있으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차이를 분석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코로나 시기의 학업무기력의 실태 및 영향요인 연구는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중학교에서 본격적인 학업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에는 과목별 평가요소에 대한 성취목표 달성여부만 공개되고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석차가 아닌 서술형 평가결과만 받게 된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처음으로 등급화된 성적표를 받으며 이러한 학업스트레스가 학업무기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강혜원, 김영희, 2004; 박성희, 김희화, 2008).

코로나19 전후의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학업무기력을 조사한 실증 데이터가 필요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의 중등패널은 코로나 이전자료를, 초등패널은 코로나 이후 자료를 포함하기 때문에(하형석, 황진구, 김성은, 이용해, 2021), 이러한 연구설계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코로나 이전과 이후 및 학년에 따른 학업무기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학생 개인특성과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를 학업무기력의 예측변인으로 활용하고, 이들 예측변인과 코로나 시기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이들 변인이 학업무기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함께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응답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중학생 1학년과 2학년의 학업무기력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에 대한 부모, 교사 및 친구관계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에 대한 부모, 교사 및 친구관계의 영향력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환경 변화 분석

지난 2020년 이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교육 분야에 가장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였다(박미희, 2020; 이정현 외, 2023; 임인숙, 장진아, 홍옥수, 2021). 급속도로 감염자가 증가하던 당시의 우선순위는 사람들의 이동을 줄임으로써 코로나의 전파 속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에 2020년 초반 전국의 모든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고, 이후 한동안 휴교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교육활동은 극도로 위축되고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전반을 지도해야 했다. 특히 수업방식은 대면수업 위주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패러다임이 대폭 변화하였고,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강미애, 남성욱, 2020; 김혜진, 2020; 임인숙 외, 2021; Gerard, Wiley, Debarger, Bichler, Bradford & Linn, 2022).

이에 따라 정부와 교육청,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의 결손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였다(교육부, 2020). 팬데믹 위기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학교수업을 온라인 교육 시스템과 대면 비대면의 융합방식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교수학습 방식을 지원하는 학사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강미애, 남성욱, 2020; 이준희, 김시현, 2021). 교육부(2020)에서는 비대면 교육 콘텐츠 활용 수업, 실시간 쌍방향 수업, 과제 중심 수업 등을 제시하였지만,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과 시행착오는 상당히 지속되었다. 특히 교사 및 또래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한 수업을 진행하는 과학이나 체육 등의 일부 교과에서 실습, 토론 및 탐구활동 등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임인숙 외, 2021; 한국과학창의재단, 2020).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학생들의 성취격차와 정서적 어려움 등이다(서미 외, 2021; 이보람 외, 2023; 정익중 외, 2020). 특히 학교가 문을 열지 않았던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학생들은 또래집단과 함께 교실에서 교사의 면대면 수업을 받기 못하고 가정에서 홀로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전반적인 학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철균 외, 2021; 이정연 외, 2020).

무엇보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시급한 문제는 누적적 학업의 실패 경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 박탈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이다(서미 외, 2021; 이정연 외, 2020; 정익중 외, 2020). 이 중에서 특히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의 증가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는 이후의 청소년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 학업적응, 그리고 학업적 성공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김아영, 주지은, 1999; 문은식, 배정희, 2010; 손유나, 2022).

그동안 팬데믹 전후 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강미애, 남성욱, 2020; 이정연 외, 2020; 임인숙 외, 2021; Deli et al., 2022), 학업결손 및 교육격차의 원인이자 결과인 학업무기력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수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서미 외, 2021; 정익중 외, 2020). 또한 코로나 전과 후의 정서적 문제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학업무기력과 같은 정서적 역량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비교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하기 어렵고,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 것에도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동일한 학생들의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 이전에 중학생이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고등학생인 경우 두 시점 자료를 비교하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라는 점 외에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업무기력 차이가 함께 측정되게 된다. 즉, 측정치에 학생들의 성장과 관련된 급격한 변화가 함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경우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라는 생애사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어서 직접 비교가 어렵다. 고등학교 시기의 학습내용이 훨씬 더 어렵고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학업스트레스와 학업무기력이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코로나 효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학업무기력을 측정하는 또다른 방법은 동일한 발달단계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겪은 개별적인 코호트를 비교하는 것이다. 다만 이 방법도 제한점이 있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 코호트 비교에는 측정시점간의 차이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생들의 특성에 전반적인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방법을 적용한 결과는 코로나 시기에 따른 차이에 연도별 차이도 포함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후자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청소년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점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차이와 구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학업무기력은 학생들의 성적과 학업스트레스가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큰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동일 학교급(중학교)을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2. 학업무기력의 개념과 관련 요인

학업무기력(academic helplessness)은 학습의 과정 및 결과를 스스로 통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적 성취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이다(박병기 외, 2015). 그동안 일반적 영역에서 다루어진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 구체적인 학업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아영, 주지은, 1999; 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Hiroto & Seligman, 1975; Miller & Norman, 1979). 학업무기력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심리적 문제이지만, 학교부적응이나 학습결손 등 이후의 부정적 징후와도 관련이 높기 때문에(김아영, 주지은, 1999; 김영희, 강혜원, 2005; 김희수, 2006), 초기 청소년의 발달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변인이다.

그동안 수행된 학업무기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학업무기력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권미나, 이진숙, 2022; 문은식, 배정희, 2010; 안태용, 2016; 이혜림 외, 2023; 임경희, 2004; 장수연, 정제영, 2020; 정문주 외, 2016; Akca, 2011; Huang Xin, 신태섭, 2021), 학업무기력이 영향을 주는 주요 결과변인에 대한 연구(김아영, 주지은, 1999; 김영희, 강혜원, 2005; 김희수, 2006; 손유나, 2022),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형화 및 관련 요인 분석 등이 있다(권현주, 2023; 노연경 외, 2022; 하아영, 조한익, 2021).

먼저 학업무기력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가정환경 배경, 부모 요인, 친구 요인, 그리고 교사 및 학교 관련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개인적인 특성이 학업무기력과 관련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문은식, 배정희, 2010; 정문주 외, 2016). 즉, 자아효능감이나 자아탄력성, 귀인성향 등의 개인 심리요인이 학업무기력과 관련이 높으며(김희수, 2006; 최현정, 이동귀, 2019; Miller & Norman, 1979), 자아존중감이나 학업열의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은주, 정혜영, 2021). 또한 학업과 관련하여 학업스트레스 역시 학업무기력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강혜원, 김영희, 2004; 박성희, 김희화, 2008; 안태용, 2016; Akca, 2011; Raufelder et al., 2018). 특히 이혜림 등(2023)의 연구에서 코로나 이후 학원이나 과외, 인터넷 및 TV강의, 방과후학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등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무기력에 대한 사회적 관계나 환경의 영향도 심도 있게 분석되어 왔다(장수연, 정제영, 2020; 한희진, 2022). 학업무기력이 높은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학습

1) 학업무기력은 '학업과 관련된' 학습된 무기력이기 때문에(박병기 외, 2015), 기존의 학습된 무기력 관련 문헌 중 학업과 관련된 것은 학업무기력이라고 간주하고 문헌연구를 진행하였음

동기가 낮아서 쉽게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자신이 처한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기예언을 내리는 것이 그 대안이다(Maier & Seligman, 2016). 이러한 재평가는 중요한 타자의 인지적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부모의 지지가 큰 도움이 된다(한미현, 1996; 한희진, 2022). 즉,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최현정, 이동귀, 2019; Huang Xin, 신태섭, 2021). 그리고 친구관계나 교사관계 등 가정 외의 사회적 지지도 학업무기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문은식, 배정희, 2010; 장수연, 정제영, 2020; 정문주 외, 2016; 한희진, 2022).

이 외에 가정의 사회적 배경이나 학급풍토와 같은 가정 및 학교의 환경적 요인도 학업무기력의 요인으로 분석되어 왔다(김민희, 2007; Rabow, Berkman & Kessler, 1983). 즉,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일수록 학업무기력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이고 부모의 지지도 낮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학교와 교사의 개입이다. 학교풍토가 긍정적일수록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이 낮았다는 선행연구(김민희, 2007)와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낮다는 것(장수연, 정제영, 2020; 정문주 외, 2016)을 고려하면 학교와 교사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적절하게 예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업무기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권미나, 이진수, 2022; 노연경 외, 2022),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학업무기력은 정신건강 및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김희수, 2006), 학교적응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유나, 2022). 또한 학업무기력이 높은 학생들은 학업부진 등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며, 이는 학업무기력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문은식, 배정희, 2010).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학업무기력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차이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거나 부모의 지원과 통제가 적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친구관계와 교사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년과 성별을 개인특성으로, 교사관계와 친구관계를 학교특성으로, 그리고 부모학력과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를 가정환경으로 설정하여 학업무기력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그리고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사이의 학업무기력의 차이를 살펴보고 관련변인의 영향이 코로나 전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8년 초등학교 4학년 2,607명(‘초등패널’)과 중학교 1학년 2,590명(‘중등패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2022년에 4차년도 조사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시기(2021년과 2022년)에 중학교 1~2학년이었던 초등패널 자료와 코로나 이전(2018년과 2019년)에 중학교 같은 학년이었던 중등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측치를 제외한 초등패널 2,176명과 중등패널 2,420명, 총 4,596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2. 분석변인

1) 종속변인: 학업무기력

종속변인은 학업무기력으로, ‘실력 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등 16개 문항으로 측정했으며(박병기 외, 2015), 신뢰도는 $\alpha=.891\sim.913$ 이었다.

2) 독립변인: 코로나 시기와 학년

독립변인인 코로나 시기와 학년은 더미변인이다. 코로나 시기는 코로나 이후(2021년과 2022년)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이었던 초등패널을 1로 지정하고, 코로나 이전(2018년과 2019년)에 중학교 1~2학년이었던 중등패널은 0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학년은 중학교 1학년을 0, 중학교 2학년을 1로 구분하였다.

3) 설명변인

설명변인 중 학생 특성 및 가정환경배경은 성별, 부모학력, 가구소득, 학업성적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을 기준으로 여학생이 1의 값을 갖는다. 부모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혹

은 보호자)의 학력을 교육연한으로 변환하고 평균한 값이다. 가구소득은 ‘소득 없음’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100만원의 범위로 조사된 자료를 각 중간값으로 변환하고 백만원 단위로 사용하였다. 학업성적은 지난 학기 전 과목 성적 수준을 주관적으로 5점 척도로 평가한 응답값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중학생들의 사회적 관계에 관련하여 부모양육태도와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를 구성하였다. 부모양육태도는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 제공’ 등 의 12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신뢰도는 $\alpha=.902\sim.921$ 이다. 교사와의 관계는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 등의 14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신뢰도는 $\alpha=.856\sim.906$ 이다. 친구와의 관계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등의 8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신뢰도는 $\alpha=.868\sim.917$ 이다.

분석변인의 기술통계량을 코로나19 전후와 학년별로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변인의 기술통계

변인	문항 수	코로나 이전 (중등패널, 2,428명)						코로나 이후 (초등패널, 2,176명)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신뢰도	평균	표준 편차	신뢰도	평균	표준 편차	신뢰도	평균	표준 편차	신뢰도	평균	표준 편차
학업무기력	16	.893	1.87	.55	.891	1.96	.52	.913	1.96	.49	.902	2.02	.49
성별	-	남 46.2%, 여 53.8%						남 50.0%, 여 50.0%					
부모학력(년)	-	-	14.24	2.07	-	14.27	2.06	-	14.75	1.82	-	14.76	1.83
가구소득(백만원)	-	-	5.19	2.28	-	5.16	2.12	-	5.53	2.07	-	5.60	2.11
학업성적	-	-	3.42	.92	-	3.30	.91	-	3.54	.74	-	3.35	.83
부모양육태도	12	.902	3.26	.49	.912	3.14	.47	.919	3.15	.47	.921	3.12	.46
교사와의 관계	14	.906	2.80	.50	.856	2.75	.48	.897	2.80	.46	.874	2.76	.50
친구와의 관계	8	.868	3.11	.54	.917	3.07	.49	.912	3.01	.50	.906	3.01	.47

3.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코로나 전후 학년별 학업무기력의 변화와 관련요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모형 1에서는 다른 변인을 고려하지 않고 두 독립변인 코로나 시기와 학년만 포함하였다. 모형 2는 코로나 시기와 학년의 상호작용항(코로나_i × 학년_i)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으로 차이 속의 차이를 산출한다. 모형 3은 학생성별, 부모학력, 가구소득, 학업성적 등 학생 특성 및 배경변인을 추가한 모형으로 이러한 배경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코로나 시기와 학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보여준다. 모형 4는 학생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이다. 최종모형인 모형 5는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사회적 관계 변인과 코로나 시기의 상호작용을 모형에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이다. 본 모형의 절편이 실제로 의미 있는 값을 가질 수 있도록 모형 3에서 모형 5까지 사용된 연속변인들은 평균을 기준으로 차이점수로 변환해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학업무기력}_i = & \beta_0 + \beta_1 \text{코로나시기}_i + \beta_2 \text{학년}_i + \beta_3 \text{코로나시기}_i \times \text{학년}_i \\
 & + \beta_4 \text{성별}_i + \beta_5 \text{부모학력}_i + \beta_6 \text{가구소득}_i + \beta_7 \text{학업성적} \\
 & + \beta_8 \text{부모양육태도} + \beta_9 \text{교사관계}_i + \beta_{10} \text{친구관계} \\
 & + \beta_{11} \text{코로나시기}_i \times \text{부모양육태도} + \beta_{12} \text{코로나시기}_i \times \text{교사관계}_i \\
 & + \beta_{13} \text{코로나시기}_i \times \text{친구관계} + r_i, \quad r_i \sim N(0, \sigma^2)
 \end{aligned}$$

이때 β_1 는 코로나 이후와 이전의 학업무기력의 차이이고, β_2 는 중학교 2학년과 1학년의 학업무기력의 차이를 나타낸다. 상호작용의 회귀계수 β_3 는 차이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후 단계적으로 투입한 통제변인은 학생의 성별, 부모학력, 가구소득, 학업성적(모형 3),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모형 4)이며, 이 변인들의 회귀계수($\beta_4 \sim \beta_{10}$)는 각 변인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증가하는 학업무기력이다. 모형 5에 추가적으로 투입된 학생의 사회적 관계와 코로나 시기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beta_{11} \sim \beta_{13}$)는 각 사회적 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효과가 코로나 시기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다른지를 나타낸다.

IV. 연구결과

1. 코로나 전후 중학교 1~2학년 학생의 학업무기력 변화

먼저 코로나 전후의 중학교 1~2학년 학생의 학업무기력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각 집단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중학교 1학년에 비해 중학교 2학년 때 학업무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의 학업무기력 평균은 1.911이었으나, 중학교 2학년에는 1.989로 .077만큼 상승하였고,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9.052$, $p<.001$). 전체자료를 패널별로 비교해 보면, 코로나 이전($M=1.915$)보다 코로나 이후($M=1.989$) 학업무기력이 더 높았다.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t=6.902$, $p<.001$).

다음으로 연구대상을 코로나 이전과 이후 패널로 구분하여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의 세로 줄에 제시되었다. 코로나 이전의 학업무기력이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년 2학년이 될 때 1.870에서 1.960으로 .090만큼 증가하였으며,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7.513$, $p<.001$). 코로나 이후의 학업무기력은 중1에서 중2가 될 때, 1.957에서 2.021로 .063만큼 증가하였고,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5.201$, $p<.001$).

자료를 학년별로 구분하여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의 가로줄에 제시되었다. 중학교 1학년 시기의 학업무기력은 코로나 이전 1.870인 반면, 코로나 이후에는 1.957로 코로나 이후가 더 높았다($t=5.711$, $p<.001$). 중학교 2학년 시기의 학업무기력도 코로나 이전 1.960인 반면, 코로나 이후에는 2.021로 코로나 이후가 높았다($t=4.061$, $p<.001$). 즉 동일학년에서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 학업무기력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다음으로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이 중학년 1학년부터 2학년이 될 때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차이점수를 계산하여 코로나 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 이전에는 학년간 학업무기력이 .090 정도 증가하였고, 코로나 이후에는 학년간 .063이 변화하였다. 그러나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536$).

표 2

코로나 전후 학업무기력 변화

	코로나 이전 (중등패널, 2,428명)	코로나 이후 (초등패널, 2,176명)	전체 (4,604명)	t 검정 (독립표본)
중학교 1학년	1.870(.517)	1.957(.485)	1.911(.460)	5.711***
중학교 2학년	1.960(.518)	2.021(.494)	1.989(.058)	4.061***
전체	1.915(.534)	1.989(.491)	1.950(.515)	6.902***
t 검정(대응표본)	7.513***	5.201***	9.052***	
변화(중2-중1)	.090(.588)	.063(.569)		-1.536

* $p < .05$, ** $p < .01$, *** $p < .001$, 숫자는 평균 괄호 안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위 표를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 그림1과 같다. 즉 중학교 1학년 보다 2학년의 학업무기력이 높았고,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학업무기력이 높았다.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사이의 변화는 코로나 이후 다소 감소하였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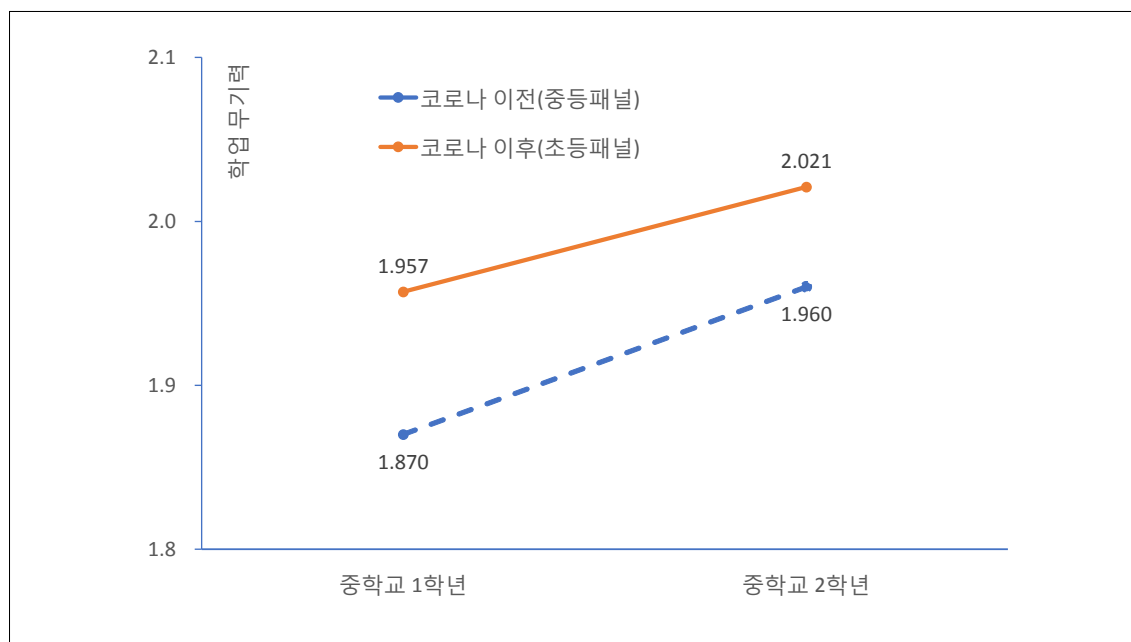


그림 1. 코로나 전후 중학생의 학업무기력 변화

2. 코로나 전후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의 변화 및 영향요인

다음으로 단계별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코로나 시기와 학년에 따른 학업무기력을 비교하고 배경변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코로나 전후 중학생의 학업무기력 변화(회귀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절편		1.872*** (.009)	1.866*** (.010)	2.669*** (.041)	4.003*** (.051)	4.236*** (.061)
설명 변인	코로나 시기 (이후=1)	.081*** (.011)	.094*** (.015)	.124*** (.014)	.075*** (.013)	-.247** (.078)
	학년 (2학년=1)	.080*** (.011)	.092*** (.015)	.070*** (.014)	.034** (.013)	.028* (.013)
	코로나 시기 × 학년		-.025 (.021)	-.034 (.020)	-.004 (.019)	.004 (.019)
학생 배경	성별(여)			.009 (.010)	.023* (.009)	.022* (.009)
	부모학력(년)			-.009** (.003)	-.009*** (.003)	-.009** (.003)
	가구소득(백만원)			-.017*** (.003)	-.010*** (.002)	-.011*** (.002)
	학업성적			-.172*** (.006)	-.123*** (.006)	-.123*** (.006)
사회적 관계	부모양육태도				-.265*** (.012)	-.293*** (.016)
	교사와의 관계				-.112*** (.011)	-.164*** (.015)
	친구와의 관계				-.116*** (.011)	-.118*** (.014)
상호 작용	코로나 시기 × 부모양육태도					.058* (.023)
	코로나 시기 × 교사와의 관계					.108*** (.022)
	코로나 시기 × 친구와의 관계					.005 (.021)
설명량(R ²)		.012	.013	.113	.242	.247

* $p < .05$, ** $p < .01$, *** $p < .001$

첫째,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코로나 이전에 비해 이후에 학업무기력이 .081 정도 높았고, 중학교 1학년보다 2학년의 학업무기력이 .080 가량 높았다(모형 1). 코로나 시기와 학년은 중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의 1.2%를 설명하였다.

둘째, 모형 1에 코로나 시기와 학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였을 때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모형의 설명량도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R^2=.013$). 즉 학년간 학업무기력의 변화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모형 2에 학생 특성 및 배경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부모학력과 가구소득, 학업성적이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했을 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 교육연한이 1년 길수록 자녀의 학업무기력이 .009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연한의 표준편차가 대략 2년 이므로, 부모교육연한 1표준편차에 따른 학업무기력 차이는 약 .03 정도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백만원 많을수록 학업무기력은 약 .017씩 낮았는데, 가구소득의 표준편차 216만원이므로, 가구소득 1표준편차에 따른 학업무기력 차이는 약 .14 정도이었다. 학업성적이 한 단위 높을수록 학업무기력이 .172 낮은 경향이 있었다. 학생특성과 가정배경을 추가적으로 투입했을 때 모형의 설명량은 .013에서 .113으로 증가하였다.

넷째, 학생의 사회적 관계에 따른 학업무기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양육태도나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등 주변사람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았다.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1단위 높을수록, 학업무기력은 각각 .265와 .112, .116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코로나 이전과 이후, 학년에 따른 학업무기력의 차이가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즉, 코로나 전후 간 차이는 .124에서 .075로, 학년에 따른 차이는 .70에서 .34로 줄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학업무기력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학생 성별에 따른 학업무기력의 차이가 없었으나(모형3), 사회적 관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학업무기력이 더 높았다(모형4). 이는 여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남학생에 비해 좋은 편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모형4에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을 때 모형의 설명량이 .113에서 .242로 크게 증가하였다. 즉 다른 변인들보다 사회적 관계가 중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을 설명하는 부분이 많았다.

다섯째,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와 코로나 시기와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양육태도와 교사관계가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코로나 전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와 부모양육태도의 상호작용의 크기는 .058, 코로나 시기와 교사관계

의 상호작용의 크기는 .103이었다. 주효과 모형에서 부모양육태도 및 교사와의 관계가 학업 무기력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할 때, 코로나 이전에 비해 코로나 이후 부모양육태도 및 교사와의 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인 중,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더 큰 것은 교사와의 관계였다. 반면 친구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 이후에도 SNS 등을 통해 친구들과의 관계를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모형 4에 사회적 관계와 코로나 시기의 상호작용효과를 추가하였을 때, 모형의 설명량은 .242에서 .247로 다소 증가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 자료 중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에 재학했던 두 코호트 자료를 바탕으로 단계별 회귀분석을 통하여 코로나 전후의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의 변화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때 학생특성과 가정환경, 부모, 친구, 교사 등의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으며, 사회적 관계와 코로나 시기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여 사회적 관계가 코로나 전후에 중학생들의 학업무기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1학년에 비하여 중학교 2학년의 학업무기력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코로나19를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중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1과 중2의 차이는 연령에 따라 학업무기력이 증가한다는 이전결과(권미나, 이진수, 2022; 노언경 외, 202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학생들은 휴교 조치로 인한 불규칙한 일상생활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친구와의 교류 감소로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었으며, 수업 및 교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고(곽영순, 2017; 서미 외, 2021; 정익중 외, 2020), 이러한 현상이 학업무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부모학력, 가구소득, 학업성취도, 부모양육태도, 친구관계, 교사관계는 학업무기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학업무기력의 성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전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문은식, 배정희, 2010). 다만 여학생들이 대체로 높은 점수를 보이는 부모양육태도나 교사관계, 친구관계 등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학업무기력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여학생들의 사회적 관계가 남학생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관계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여학생의 학업무기력이 더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학력과 가구소득 등과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중학생의 학업무기력과 부적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빈곤함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고, 또 그자체로 학업무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장미순, 김진호, 2017; Gibson & Barr, 2017; Rabow et al., 1983)와 일치한다. 실제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정도도 높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무기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존에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듯이(문은식, 배정희, 2020; 한미현, 1996; 한희진, 2022; Huang Xin, 신태섭, 2021 등),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는 중학생의 학업무기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즉, 가정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했을 때,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심리적 통제행동, 지능에 대한 신념 등은 자녀의 학업무기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태용, 2016; 최현정, 이동귀, 2019; Filippello et al., 2018; Goodall & Johnston-Wilder, 2015; Huang Xin, 신태섭, 2021; Jose & Bellamy, 2011; Orkin, May & wolf, 2017).

다음으로 학교요인과 관련하여, 친구관계와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진아, 2022; 임경희, 2004; 장수연, 정제영, 2020; Huang Xin, 신태섭, 2021). 또한 중학생이 지각한 학급풍토가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김민희, 2007)도 결국은 교사 및 동료학생과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가 필요한데,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부모의 지원이 약한 학생들의 경우에 친구관계나 교사관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부모양육태도와 친구관계, 교사 관계 중에서 부모양육태도와 교사관계는 코로나 시기와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최종 상호작용모형에서 주효과를 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중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부모양육태도와 교사관계는 학업무기력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즉,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무기력이 증가한 상태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사관계는 이전보다 학업무기력에 주는 영향이 감소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먼저 교사의 영향력이 코로나 이후 줄어든 것은 2020년 이후 한동안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교사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 이후에 부모의 긍정적인 효과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부모 역시 본업 및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는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코로나 시기 부모양육태도 점수가 다소 낮아진 본 연구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코로나로 인한 학업무기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즉 동일 학생의 코로나전후 학업무기력의 차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반대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 동일학년의 다른 학생들을 비교하면 3년간의 차이가 함께 분석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하여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시기를 코로나 이전에 겪은 코호트(중등패널)와 코로나 이후에 겪은 코호트(초등패널)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때 중등패널과 초등패널 간의 3년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개인 내 생애사적 차이보다는 작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코로나 시기에 따른 차이는 3년간의 차이도 포함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미는 실증자료를 통해 코로나 전후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학업무기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코로나 이후에 학업무기력이 높다는 것(권미나, 이진숙, 2022; 권현주, 2023; 노연경 외, 2022)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학업무기력이 이후의 청소년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학업적 성공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김아영, 주지은, 1999; 김의수, 2006; 서윤미, 2014; 손유나, 2022). 따라서 어떠한 요인들이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다각도로 수집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나타나듯이, 가정환경이 좋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았다. 이는 가정환경이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학업무기력에 차이는 없었으나,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학업무기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남녀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여학생의 경우 학업무기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부모관계와 친구관계, 교사관계 등 사회적 관계가 좋은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이 낮다는 결과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즉,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무기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안태용,

2016; 정은주, 정혜영, 2021; 최현정, 이동귀, 2019) 자녀를 따뜻하게 대하고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고, 일상 활동에 규칙과 의미를 부여해줌으로써, 자녀의 학업무기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늘리고 함께 여행을 하거나 문화 활동을 하는 등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친구관계와 교사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교우관계가 부족한 학생일수록 학업무기력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의 모둠활동이나 다양한 교내외 단체 활동에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을 예방해야 한다. 교사관계도 학업무기력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므로, 학업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학업효능감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원혜미, 이수연, 2016). 이러한 활동은 이후 중학생들의 학습결손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흥미로운 결과는 학업무기력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이 코로나 이후에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에 대한 교사의 영향이 더 작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이후 휴교상황에서 학생들이 등교하여 교사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으로, 즉 학생들의 생활전반에 대한 교사의 영향이 미칠 여지가 적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3년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세대가 지나면서 학생들의 학업무기력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진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의 한계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후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와 사회가 정상화 된 이후 동일한 학년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추후 연구를 통해 학업무기력에 대한 코로나 시기 및 학년의 영향에 대하여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미애, 남성욱 (2020). 코로나 19로 인한 쌍방향 원격수업에 관한 연구: 세종시 초등학교 교사들과 FGI 질적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1), 89-116. doi:10.22251/jlcci.2020.20.21.89
- 강혜원, 김영희 (2004). 학업스트레스 및 성적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상담학연구**, 5(4), 883-897.
- 권미나, 이진숙 (2022). 청소년의 학업무기력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 **청소년학연구**, 29(5), 87-108. doi:10.21509/kjys.2022.05.29.5.87
- 권현주 (2023). **중학생 학업무기력의 종단적 변화 유형 및 예측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교육부 (2020).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가이드라인**. 서울: 교육부.
- 김민희 (2007). **중학생이 지각한 학급풍토와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아영, 주지은 (1999). 학습된 무기력, 실패내성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29, 157-176.
- 김영희, 강혜원 (2005). 학습된 무기력, 실패내성과 학교적응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20, 1-16.
- 김혜진 (2020). 코로나19에 따른 초등 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613-639. doi:10.22251/jlcci.2020.20.20.613
- 김희수 (2006). 고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이 정신건강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54(2), 77-93.
- 노언경, 송주연, 우연경 (2022).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 전이 양상 및 영향요인 검증: 1-3학년 간의 변화. **한국교육학연구**, 28(1), 67-90. doi:10.29318/KER.28.1.3
- 문은식, 배정희 (2010). 학습사 및 사회적, 동기적 변인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남고생과 여고생의 비교. **교육심리연구**, 24(1), 183-205.
- 박미희 (2020). 코로나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0(4), 113-145. doi:10.32465/ksocio.2020.30.4.005
- 박병기, 노시연, 김진아, 황진숙 (2015). 학업무기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 24(4), 5-29. doi:10.17643/KJCE.2015.24.4.01
- 박성희, 김희화 (2008).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력감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5(3), 159-182.
- 서미, 이자영, 김신아, 편여울강, 김지혜, 정송호 (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 정신건강 연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서윤미 (2014). **진로성숙도, 학습된 무기력,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유나 (2022). **청소년의 학습된 무기력 및 사회적 위축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준중 (2022). 코로나바이러스-19와 교육의 관계에 대한 교육사회학적 성찰. **교육사회학연구**, 32(2), 1-33. doi:10.32465/ksocio.2022.32.2.001
- 신철균, 위은주, 안영은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중학교 교육격차 분석: 등교일수 및 도농간 차이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9(5), 47-71. doi:10.18230/tjye.2021.29.5.47
- 안태용 (2016). 초등학생이 지각한 긍정적 및 부정적 부모 양육행동, 과외 학업스트레스 및 학습된 무기력의 구조적 관계. **초등교육연구**, 29(4), 133-160.
- 원혜미, 이수연 (2016). REBT 미술치료가 여고생의 학습된 무기력과 학교생활 부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상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8), 326-335.
- 이보람, 이은별, 송무석 (2023).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의 경험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32(2), 99-115. doi:10.5934/kjhe.2023.32.2.99
- 이정연, 박미희, 소미영, 안수현 (2020). **코로나19와 교육: 학교구성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준희, 김시현 (2021). 코로나19 시기 수업 운영 현황과 과제: 교원이 인식하는 어려움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8(4), 395-424. doi:10.24211/tjkte.2021.38.4.395
- 이혜림, 이건희, 최인수, 김선진 (2023). 학습시간 유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과 창의적 성격, 그릿,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 코로나19 상황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0(12), 157-176. doi:10.21509/KJYS.2023.12.30.12.157
- 임경희 (2004). 가정, 학교 및 개인변인과 중학생의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5(2), 473-507.
- 임인숙, 장진아, 홍옥수 (2021). 코로나 19 상황이 과학탐구 수업에 끼친 영향: 과학교사들이 경험한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현장과학교육**, 16(1), 45-58. doi:10.15737/ssj.16.1.202202.45
- 장미순, 김진호 (2017). 초등학교 위기학생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양육과 지도 실태, 행동 및 학업 특성에 대한 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33(1), 125-143. doi:10.33770/JEB D.33.1.7
- 장수연, 정제영 (2020). 교사 및 친구 관계, 그릿, 학업 무기력의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교육연구논총**, 41(4), 203-234. doi:10.18612/cnujes.2020.41.4.203

- 정문주, 양현숙, 채은영, 김선희 (2016). 청소년의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3(5), 31-65.
- 정은주, 정혜영 (2021). 초등학생이 지각한 긍정적 양육 태도와 자아존중감, 학업열의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초등교육연구**, 34(3), 19-44.
-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 코로나 19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한국아동복지학**, 69(4), 59-90. doi:10.24300/jkscw.2020.12.69.4.59
- 최현정, 이동귀 (201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학업 실패 내성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2), 189-205. doi:10.16983/kjisp.2019.16.2.189
- 하아영, 조한익 (2021). 잠재전이분석을 적용한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 잠재집단 분류와 전이 영향요인 분석. **중등교육연구**, 69(3), 299-330. doi:10.37342/swpp.2023.9.3.163
- 하형석, 황진구, 김성은, 이용해 (2021). 202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사업보고서.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희진 (2022).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22(20), 379-391. doi:10.22251/jlcci.2022.22.20.379
- Abramson, L. Y., Seligman, M. E. P. & Teasdale, J.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49-74. doi:10.1037//0021-843x.87.1.49
- Akca, F.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test anxiety and learned helplessnes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9, 101-112. doi:10.2224/sbp.2011.39.1.101
- Deli, S., Koray, O., & Kahraman, E. (2022). Experiences of science teachers during the Pandemic-based distance learning process and their recommendations about the post-Pandemic process. *Journal of Education in Science, Environment and Health*, 8(2), 144-167. doi:10.55549/jeseh.1113677
- Filippello, P., Harrington, N., Costa, S., Buzzai, C., & Sorrenti, L. (2018).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chool learned helplessness: The role of frustration intolerance as a mediator factor.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9(4), 360-377. doi:10.1177/0143034318775140
- Gerard, L., Wiley, K., Debarger, A. H., Bichler, S., Bradford, A., & Linn, M. C. (2022). Self-Directed science learning during COVID-19 and beyond. *Journal*

- of Science Education and Technology*, 31(2), 258-271. doi:10.1007/s10956-021-09953-w
- Gibson, E. L., & Barr, R. D. (2017). Building a culture of hope: Exploring implicit biases against poverty. *National Youth-At-Risk Journal*, 2(2), 39-49. doi: 10.20429/nyarj.2017.020203
- Goodall, J., & Johnston-Wilder, S.(2015). Overcoming mathematical helplessness and developing mathematical resilience in parents: An illustrative case study. *Creative Education*, 6(5), 526-535. doi:10.4236/ce.2015.65052
- Hiroto, D. S., & Seligman, M. E. P. (1975). Generality of learned helplessness in m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311-327. doi:10.1037/h0076270
- Huang Xin, 신태섭(202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교사-학생 관계, 자존감 및 학업 무기력 간의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교육연구논총* 42(1) 163-198. doi:10.18612/cnujes.2021.42.1.163
- Jose, P. E., & Bellamy, M. A. (2011). Relationships of parents' theories of Intelligence with children's persistence/learned helplessnes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3(6), 999-1018. doi:10.1177/0022022111421633
- Maier, S. F., & Seligman, M. E. (2016). Learned helplessness at fifty: Insights from neuroscience. *Psychological review*, 123(4), 349-367. doi:10.1037/rev0000033
- Miller, I. W., & Norman, W. H. (1979).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 A review and attribution theory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86, 93-118. doi:10.1037/0033-2909.86.1.93
- Orkin, M., May, S., & Wolf, M. (2017). How parental support during homework contributes to helpless behaviors among struggling readers. *Reading Psychology*, 38(5), 506-541. doi:10.1080/02702711.2017.1299822
- Rabow, J., Berkman, S. L., & Kessler, R. (1983). The culture of poverty and learned helplessness: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Sociological Inquiry*, 53(4), 419-434. doi:10.1111/j.1475-682x.1983.tb01232.x
- Raufelder, D., Regner, N., & Wood, M. A. (2018). Test anxiety and learned helplessness is moderated by student perceptions of teacher motivational support. *Educational Psychology*, 38(1), 54-74. doi:10.1080/01443410.2017.1304532
- Seligman, M. E. P. (1972). Learned helplessness. *Annual Review of Medicine*, 23 (1), 407-412. doi:10.1146/annurev.me.23.020172.002203

ABSTRACT

Analysis of changes in academic helplessness and influencing factors in middle school students before and after COVID-19*

Shin, Hye Sook** · Min, Byeongcheol***

In this study, we aimed to examine changes which have been identified in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helplessness before and after COVID-19 and analyzed the influencing factors based on data from the first and second year of middle school from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 panels of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2018'.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cademic helpless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after COVID-19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nel) was higher than that of middle school students before COVID-19 (middle school students panel). In addition, parental education, household income, school grades, parenting attitudes, peer relationships, and teacher relationships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to levels of academic helplessness. The impact of parenting attitudes and teacher relationships on academic helplessness tended to decrease after COVID-19 compared to before COVID-19. Based on these results, we argue that particular groups we have identified here require attention related to academic helplessness and to implement various activities to reduce students' academic helplessness.

Key Words: academic helplessness, COVID-19, parenting attitud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2018

* This article is revised with a big help of comments at the 12th conference on KCYPS(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bcmin80@gmail.com